

미녀 프로기사들 바둑판 들고 軍부대로

이민진·김효정·이다혜 등 '군 바둑위문단'

65사단 찾아 군인들에 체계적 '바둑 강의'

"바둑이요? 군대 있을 적 배웠죠. 말년병장 때 시간은 안 가고 뭔가 짐 중할 거리를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군요. 잘 둔다는 소문이 나서 중대장하고 두기도 했는데 어쩌다 이 기분 부대 분위기가 삽막해지면 했습니다."

바둑팬이라면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이다. 바둑을 언제 배웠냐는 질문에 적어도 10명 중 1명은 이런 답변을 늘어놓곤 한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대부터 50대 이상 성인의 7.4%는 군대에서 바둑을 접했다고 한다. 친지와 친구, 동료들에 의해 바둑을 배운 경우가 61.3%로 1위를, 독학으로 접한 게 15.9%, 그 다음이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기원 소속 여자 기사들이 군부대 바둑보급에 첫 삽을 끼고 있

어 화제다.

여자 프로기사들을 주축으로 한 '군 바둑위문단'이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65사단을 찾아 바둑 보급활동을 펼쳤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바둑을 자주 접하는 군인들에게 체계적인 바둑 교육을 펼쳐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김효정 2단의 바둑 강의와 바둑 애니메이션 상영, 프로기사와 장병들의 지도대국 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대는 지난 7일에 장병들을 위한 바둑교실을 처음 열었고, 소식을 접한 여자기사회가 바둑 전도에 나선 것이다.

이민진, 김혜민 5단, 김민희, 이다혜 3단, 윤영민, 김효정 2단, 배윤진, 김수진, 박소현 2단 등 여자기사와 조



김효정 2단이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65사단을 찾아 장병들에게 바둑의 다양한 포석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원 제공〉

한승, 원성진 9단 등 남자기사들이 이 날 장병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효정은 "호응이 정말 좋았어요. 15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했는데 바둑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

다"면서 "욕심 같아선 전국의 모든 군부대들이 바둑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원과 여류기사회는 바둑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군부대에 여류기사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부대 동아리 활동시간인 토요일을 이용해 바둑강의와 지도기 등을 통해 바둑을 보급할 방침이다.

〈사이버로 오광록기자 kroh@

이창호, 이세돌 꺾고 '바둑왕' 2연패

이창호(사진) 9단은 역시 '센돌'에 강했다.

이창호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27기 KBS바둑왕전 결승 3번 기 3국에서 이세돌 9단을 214수 끝에 2집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이창호는 종합전적 2-1로 바둑왕전 2연패를 달성했다.

이 경기에 앞서 이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158수 만에 불계승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막판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이창호는

결승 2국 종국 후 20분 뒤 속개된 결승 3국에서 특유의 침착함으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세돌의 '페

기'보다는 이창호의 '관록'이 빛난 학관이었다.

2연패를 달성한 이창호는 이 대회 통산 10회 우승을 기록했다.

KBS바둑왕전은 1988년 이창호 9단이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했던 기전이다.

이창호는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좋은 컨디션을 회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우승에 머문 이세돌은 "나름 대로 만족한다. 이창호 9단과 대국 할 때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여기지는 못하더라도 베릴 수 있는 바둑을 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이창호와 이세돌은 오는 6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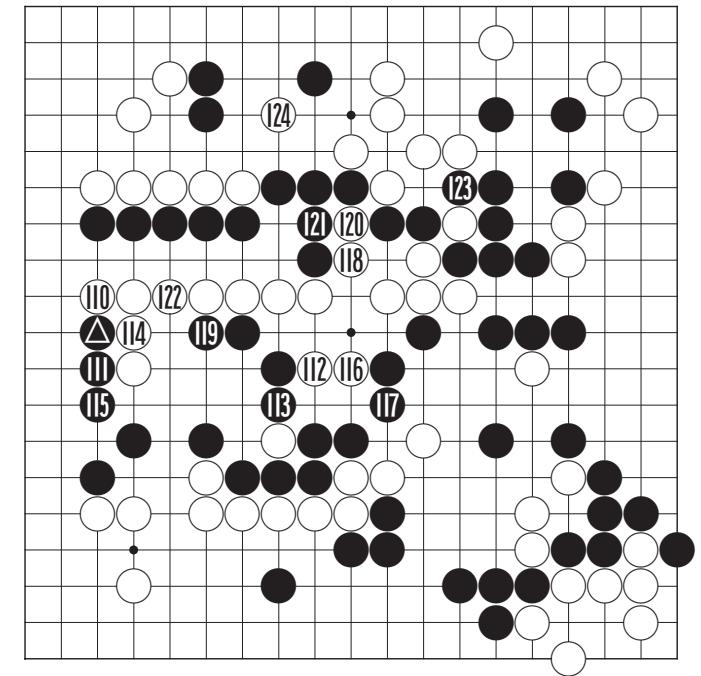
국에서 열리는 제16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깜짝 놀랄 대 실착'
최강부 결승전 7보(110~124)

白 선계성 6단 黑 임상빈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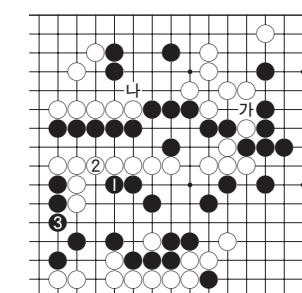
고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깜짝 놀랄 대 실착이 임상빈에게서 터져나와 관전객들을 경악케 한다.

흑 119가 상대까지 놀라게 한 대악수로 이 수로는 무조건 120에 이어야 했으며 그러면 백 대마가 살 길이 없었다.

119를 정히 두고 싶으면 115로 '참고도'처럼 흑 1을 선수해야 했으며 그런 다음 3으로 두었으면 완벽했다. 이 다음은 '가'와 '나'가 맛보기라 수상전도 없이 백 대마가 잡힌다.

임상빈은 완벽하게 백 대마를 그물에 가둬놓았다가 대실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흑 대마가 백의 추궁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계성 6단이 백 110부터 116까지를 선수한 다음 118로 젖혀봤는데 이것은 사는 수를 봤다기보다는 던질 곳을 찾는 분위기라



구링이 5단 中 서남왕전 3연패

구링이 5단이 기지개를 켰다.

구링이는 지난 16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회 중국바둑 서남왕전 결승전에서 구링이 중국랭킹 1위인 구리 9단을 251수만에 불계로 누르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서남왕전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한 것은 구링이가 처음이다.

중국 갑조리그 쓰촨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링이는 현재 중국랭킹 18위로 이번 대회에서 당시이예이, 왕시, 씨에허 등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0학년도 면입대비

- ★ 기초부터 알기쉽게
-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 문법, 특히 어휘MT(조별토론학습)
- ★ 전대편입특별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www.pms.co.kr www.kimyoung.co.kr

PMS·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3-1140, 5210 52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 (02)281-8949 헌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얼티문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동구 산수동 소재 대전면 대지 20.6m 평 매매가 6억 5,

000원평당에 주유소 복합보증지 풀제 청고지지

-광산구 짐복동 생활지역 1.941m² 미기 24,000원평

-부기 1.941m² 미기 24,000원평

-금정구 남원구 구리시 계곡동 1.941m² 미기 24,000원평

-금정구 산수동 1.